

# “시선의 높이가 삶의 수준 결정…출발점은 상상력·창의력”

‘광주일보 제5기 리더스아카데미’ 개강…최진석 서강대 교수 강연

“개인 또는 국가가 지닌 시선의 높이가 나라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시선의 높이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생각의 높이다. 그 생각이 탁월한 수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독립성을 확보할 때 가능해진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제5기 리더스아카데미’ 개강 강연에서 중진국 최고 상위 레벨에 도달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집필한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저서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는 지식생산국이 아닌 지식수입국으로,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생상품부터 철학적 사고에 이르기까지 선진국을 따라 하는 종속적 삶을 살아왔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종속적 삶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진국의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이를 뛰어 넘는 시선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간은 자기 시선의 높이와 다른 대상의 높이의 시선이 같으면 동질감, 즉 쾌락이 발생한다. 박물관과 가라오케의 수준의 높이가 같진 않다. 박물관보다 가라오케를

미래형 인간은 모험심 강해

‘누구의 꿈 가졌나’ 자문을

선진국으로 가는 길

혁명적 시선 전환 필요

선호하는 인간은 자기 시선의 높이가 가라오케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은 박물관보다 가라오케를 더 쉽게 접근하려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이를 뛰어 넘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시선 전환의 출발점이 상상력과 창의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자기 스스로 독립적 사고를 하고 모험적 삶을 살면서 경험을 확장시켜갈 때 자연적으로 발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피아니스트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음악가가 되는데, 이 음악가가 더 이상 구현할 게 없어지면 우리는 이를 예술가라고 부른다. 피아니스트에서 음악가로, 음악가에서 예술가가 되기까지 과정은 천지 차이”라면서 “이는 있는 길을 가

는 것과 없는 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자가 훈고적인 과정이라면, 후자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되는 것과 같다. 후진국에서 중진국,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 이지”라고 설명했다.

중진국 최고 상위레벨에 도달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기존에 닦인 길을 쫓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독립성을 기르기 위해선 자신의 꿈을 찾거나 자기 내면 속 궁극증을 질문화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내 자신을 위한 꿈을 가지고 있는 자, 다른 사람이 꾸는 꿈을 대신 채워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모험을 즐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후진국일수록 탐험가가 거의 없다. 탐험은 위험을 찾아가는 것이고 모험은 위험을 뒤집어 쓰는 것으로, 모든 새로운 시도는 모험”이라면서 “미지의 세계는 이상하고 나쁘고 무섭고 황량한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려운 곳이 모든 새로운 생각이 움트는 세계”라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만 버티 보려하는 것, 어떤 일



지난 1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제5기 리더스 아카데미’ 개강 강의에서 최진석 서강대 교수가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을 함에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은 과거를 살 수밖에 없다. 미래를 사는 사람은 모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왜 지금 우리는 시선

의 전환을 해야 하는가. 이는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의 여부는 우리 모두의 시선의 높이에서 결정된다.

우리의 미래, 탁월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시선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특수본 이원석·한웅재 동시 투입할 듯

‘피의자 박근혜’ 누가 조사하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역대 네 번째 전직 대통령 조사를 맡게 될 검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 조사에는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48·연수원 27기),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47·연수원 28기)이 동시 투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검사는 당시 대검 중수과장이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특수본의 마지막 핵심수사 대상인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는 청단범죄수사 2부(이근수 부장검사)가 전담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소환 당일 삼성동 사저에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한다.

검찰 청사 환관에 도착해선 포토라인에 잠시 섰다가 7층 형사 8부 영상녹화조사실인 705호에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미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가 출석해 조사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예우 수준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놓고 ‘어떤 조율도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된 신분이어서 예우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조사 자체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강도 높게 진행하더라도 형식상 일정 부분 예우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검찰은 가장 최근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 사례인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사례를 참고해 예우 수준을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일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느냐’는 질문에 “과거 전례를 보고 잘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4월 30일 뇌물 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출석해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선 뒤 중앙수사부장 등과 간단히 면담하고서 조사실로 향했다.

/연합뉴스

## 조사불응 빌미없이 신속수사 포석

‘박 소환’ 왜 21일인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공식 통보함에 따라 첫 대면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정 이래 전직 대통령에게 ‘소환 통첩’을 한 것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다.

소환조사 날짜가 정해지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14일 오후 소환 방침을 전명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하루 만인 15일 오전 신속하게 소환 날짜를 못 박으며 ‘속전속결’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의 소환 방침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혀 일단 현재로서는 출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검찰이 21일을 택한 것은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 측에도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해 논란의 소지를 봉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굳이 소환 일정 자체로 불필요한 긴장이 형성되는 것을 가급적 피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우병우 수사 본격 착수…최순실 대기업 조사도

박 전 대통령 측이 “협의 내용이 방대한 데 변호인단이 꾸려진 지 얼마 안 됐고 기록 검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해올 경우 괜히 긴장감만 더 높아진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로 출석 요구를 조율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 수 있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사정을 두루 고려해 ‘적당한’ 시점을 택일했다는 얘기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경호 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이 예상보다 빨리 승부수를 던진 것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미룰 이유나 명분이 더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5월 9일로 확정된 대선 일정도 고려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지연돼 4월로 넘어갈 경우 대선 정국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면서 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15일 오전 통보해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과 더불어 ‘2기 특수본’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힌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이나 삼성 외에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일단 여러 의혹을 동시에 병행 수사하는 형태로 분주하다. 우 전 수석을 둘러싼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세월호 수사 외압,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이나 아들의 의정 보직 특혜 등 개인 비위 의혹 등은 검찰과 특검팀을 거치며 수사가 꽤 진척됐다.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 검토를 해 온 검찰은 관련자 조사에도 이미 착수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 “우 전 수석 사건 관련 참고인을 5명 정도 이미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의정 복무 중 특혜 논란이 일었던 우 전 수석 아들 우모(25)씨가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들어간 상태다.

다만 우 전 수석 수사는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대선 일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SK·롯데 등 삼성 외에 대기업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떼어놓고 수사하기 어려운 만큼 초반부터 병행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뇌물수수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려면 대기업 수사는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런 만큼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전후해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기업 수사도) 일괄적으로 한다. 건건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검찰은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상반기 면세점 제도 개선안 관련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면세점 인허가나 총수 사면 같은 현안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이 SK·롯데그룹과 ‘거래’를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기 위한 다지기 작업으로 풀이된다. 향후 다른 정부 관계자나 대기업 관계자 소환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861㎡ 매15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월5백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70㎡ 현 신발대리점 입점 매 20억원 (보5천/월9백만 포함)
- 월계동 3층 상가점포 500㎡ 매 8억5천 (학원, 독서실, 임대가)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 24억원(보1억6천/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형영

토 지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억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장덕동 키즈카페(자동차체험형) 300㎡ 5천/월365만
- 수원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국제마음훈련원

## 참마음 훈련

참마음 훈련은 우리의 본래 마음을 훈련을 통해 알고, 기르고, 잘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훈련이며, 아래와 같이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초대 합니다.

주 제

일심 알음알이 실행으로 감사보은 하자

일 시

2017년 3월 21일(화) ~ 24일(금)  
※후반기 참마음훈련은 8월 15일 ~ 18일에 있습니다.

장 소

국제마음훈련원

접 수

국제마음훈련원 061-353-1043, 010-8669-0527

훈련비

20만원

준비물

세면도구, 모자, 편안한 복장, 운동화, 여벌옷 등

주 소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1840

국제마음훈련원 전경